

청년 인구 5년 연속 감소... 10명 중 6명이 빚 안고 생활



19~39세 '순천시 청년통계' 보니

■ 2016년 순천시 청년인구



■ 가구 부채



■ 혼인상태



■ 2016년 상반기 청년 경제활동



■ 2015년 모의연령 출산율



■ 스트레스



■ 주거 형태



■ 주요 암 청년 진료인원



순천지역 청년(만19~39세) 10명 중 6명은 부동산 마련을 위해 빚을 졌으며 10명 중 3명은 5000만원이 넘는 빚을 안고 생활하고 있었다. 또 순천 청년의 절반(58.0%) 이상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74.9%였다. 10명 중 셋(36.1%)은 혼자 밥을 먹는 '청년 1인 가구'였다.

1일 순천시가 발표한 '순천시 청년통계'에는 순천지역 청년들의 자화상이 담겨 있다.

순천시의 청년 통계는 인구, 혼인·출산, 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연금, 건강 등 9가지 분야의 지표를 호남지방통계청과 공동으로 취합, 분석한 것으로, 순천지역 청년들의 삶과 가치관 등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전남에서는 최초로 개발한 청년정책 맞춤형 행정 통계"라는 게 호남지방통계청 설명이다. 순천시는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순천 청년인구는 매년 줄어=지난해 기준 청년 인구는 7만516명. 순천 전체 인구(27만8548명)의 27.2%였다. 청년 비율은 ▲2012년 7만6395명(27.9%), ▲2015년 7만6123명(27.3%) 등으로 5년 연속 감소. 청년 인구 비율은 광양시(28.7%)가 가장 높았고 목포(27.5%)가 뒤를 이었다.

순천은 20대, 50대, 60대 이상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10대 이하, 30대는 2012년 이후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순천시의 노령인구 비율은 13.6%로 전남 시·군 중 광양(10.9%)에 다음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해룡면(1만4250명)이 청년인구가 가장 많았고 덕연동(1만406명), 왕조1동(1만1780명) 순이었다. 청년 세대주는 (2만102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7.8%였고 1인 세대주는 11.1%로 집계됐다.

◇초혼 연령 남성 32.4세, 여성 29.8세=순천지역 여성의 초혼 연령은 29.8세로 2000년 대비 4.07세 늦춰졌고 남성도 32.4세로 2000년에 비해 초혼연령이 3.39세 늘어났다.

순천시 전체 출산율(2015년)은 해당연령 여성인구 1000명당 30.9명, 청년(20~39세)의 출산율은 60.3명으로 전년도에 견줘 다소 증가했다.

고용률 56.3%... 전년보다 떨어져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이 93%

10명 중 3명 빚 5000만원 넘어 58%가 일상에서 스트레스 느껴 평균 출산연령 31.74세로 높아져

전남 첫 청년정책 맞춤형 통계 '돌아오는 순천' 기초자료 활용

연령대별 출산율은 2008년까지는 '25~29세'가 가장 높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30~34세'에서 가장 높았고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평균 출산연령은 31.74세로, 2000년(28.85세), 2010년(30.85세), 2014년(31.54세)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순천시 신혼부부는 7005쌍으로 '5년차' 신혼부부가 20.6%(1442쌍)로 가장 많았다. 2년차 신혼부부는 1372쌍(19.6%), 3년차 1399쌍(20.0%), 4년차 1412쌍(20.2%) 등으로 신혼 부부가 적어지는 추세를 들여다볼 수 있다.

신혼부부(7005쌍) 중 '외벌이' 부부가 절반이 넘는 52.0%(3642쌍)였고 '맞벌이' 부부는 39.5%(2765쌍)였다. 순천신혼부부는 '아파트'를 보금자리로 한 경우가 77.2%(5507쌍)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 신혼부부는 50.4%(3534쌍)였다.

◇처음 집 사는데 79.2개월=순천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9.2개월로, 전남 지역 평균(59.5개월)보다 더 걸렸고 첫 주택 구입까지 평균 3.15회 이상을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기준 순천시 청년가구(2만1089가구)는 순천시(9만9899가구)의 21.1%, 1인 가구는 36.1%(7607가구)였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순천시 청년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400만원 미만'이 29.8%로 가장 많았다. '200만~

300만원 미만' 25.3%, '100만~200만원 미만' 17.2% 순이었다. 청년가구 중 '19~24세'는 '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경우가 93.0%에 달했고 '35~39세'의 34.1%도 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시 청년 중 67.3%가 빚이 있으며 규모는 '5000만원 이상'이 30.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지난해 순천시 청년 중 건축물을 소유한 청년은 639명(0.8%), 6건 이상 소유자도 12.2%(78명)로 나타난 눈길을 끈다.

◇직업 선택시 급여 수준이 최우선= 지난해 상반기 순천의 청년 고용률은 56.3%로 순천시 전체(57.8%)보다 낮았고 청년 실업률(4.5%)은 순천시 전체(2.2%)보다 높았다. 순천 지역 청년 고용률은 지난 2015년 하반기(57.8%)보다 더 떨어졌다. 청년 취업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순천 청년들은 또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33.5%가 응답, 가장 많았고 '안정성' 29.6%, '적성·흥미' 17.8%, '발전·장래성' 10.1% 순이었다.

순천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는 사업체의 경우 150~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제시한 구인업체는 65.6%인 반면, 청년들이 입사 때 월급 150~20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경우는 35.0%에 불과했다. 기업체 수준과 청년 희망 사이 괴리가 크다는 얘기다.

창업을 꿈꾸는 순천 청년들의 희망 업종은 '개인서비스' 34.7%, '음식점업' 23.6%, '정보통신기술' 12.3%, '스포츠·오락 관련서비스업' 7.5% 순이었다. 청년 사업 등록자가 많은 지역은 덕연동(1351명), 왕조1동(1040명) 등이었다.

◇10명 중 7명, 직장 스트레스=순천 청년 10명 중 4명(37.0%)은 '1주일에 두세번 정도' 운동을 하고 순천 청년 중 10명 중 6명(58.0%)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74.9%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근 5년간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청년의 경우 '신경계질환' 증상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환경성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청년들은 '알레르기 비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고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및 폐렴'과 '우울증' 진료를 위해 병원에 온 청년도 증가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해룡 와온마을은 벌써 가을? "전어잡이 체험하러 오세요"



여름철 충분한 먹이를 먹고 성장, 가을에 가장 맛이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 '가을 전어'다. 순천 해룡면 와온마을 앞바다는 벌써 가을인가 보다. 전어 잡으러 나가자며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어서다.

전어잡이 배에 올라타고 바다로 나서면 붉은 낙조에 취하고 짜릿한 손맛에 또 한 번, 전어 풍미에 마지막으로 취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와온마을 전어잡이는 10월 중순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체험할 수 있다. 와온마을에서 배를 타고 20여분 나가 진행된다. 즉석에서 전어회, 구이 등을 맛볼 수 있다.

신윤철 마을 어촌계장은 "전어를 잡으며 해넘이 광경에 반해 다시 찾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다"며 "생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전어잡이 체험행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